<DMZ 보고서>

221호 이승연

DMZ를 간다는 사실에 설레어서 잠이 오질 않았다. 기대되었던 탓에 결국 아침에 늦잠을 자고 말았지만, 다행하게도 시간을 훌쩍 넘지는 않았다. 7시에 출발해서 4시간 동안 달렸다. 아침을 먹고 오지 않아서 배가 출출했다. 나는 선생님께서 주신 김밥으로 배고픔을 달래면서 쉬리, 공동경비구역이라는 영화를 보았다. 영화를 시청하면서 애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쉬리라는 영화는 사랑하는 연인을 적으로 둔 것 때문에 사랑하지만 어쩔 수 없이 총으로 쏴 죽였고, 공동경비구역이라는 영화는 남측과 북측의 군인이 절친한 친구가 되었지만 아무래도 적이다 보니까 아픔을 견딜 수 없었던 사실에 정말 안타까웠다. 한참을 달리다 보니 군사분계선이 있는 철원에 도착하였다. 이때 철원은 궁예가 도읍으로 정한 지역이고, 넓은 평야를 가지고 있으며 그로 인해 쌀이 유명하다고 한다. 겨울에는 두루미들이 천 마리 이상 이동한다고 한다. 6.25 전쟁 전의 철원의 모습은 건물도 많고 도시로 불렸지만, 전쟁 때 처참한 폭격으로 인해 넓은 평야가 되었다고 한다. 철원에 도착해 점심으로 맛있는 막국수와 수육을 먹었다. 점심을 든든하게 먹은 후 우리는 노동당사를 향해 출발했다. 이 철원 노동당사는 평양 노동당사 다음으로 큰 공산당 건물이었다고 한다. 철원은 농사가 잘되어 부유했던 지역으로, 노동당사는 소련 스타일로 지어졌다. 하지만 한국전쟁의 치열한 전투 지역이었던 철원의 건물들은 거의 모두 파괴되었는데, 노동당사의 잔해는 당시 전투의 치열함을 잘 보여주는 전쟁 유적이다. 우연의 일치로 내가 좋아하는 가수 그룹이 노동당사에서 촬영했었다. 그래서인지 처음 와보는 곳이었는데도 익숙한 느낌이 들었던 것 같다. 같이 온 반 친구들과 함께 자세를 취한 해 사진을 찍었다. 단체사진도 다 함께 촬영한 다음 우리는 모노레일을 타고 평화 전망대를 향해 다가섰다. 모노레일을 타기 전 선생님께서 뻥튀기를 나눔 해주셨다. (감사합니다!) 케이블카는 타봤지만, 모노레일은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어 무척 신기했다. 모노레일을 타면서 아래를 내려다보니 드넓은 땅과 숲, 그리고 거대한 저수지가 보였다. 드디어 평화 전망대에 도착했다. 평화 전망대 안에서는 철원과 관련된 영상을 상영하고 있었는데, 전혀 눈에 들어오질 않았다. 그 이유는 창문 밖에 어마어마한 경치가 보였기 때문이다! 온통 드넓은 숲, 멀리서 보이는 작은 건물, 높은 산뿐이었지만 저 너머에 분단된 국가인 북한이 있다고 생각하니 감회가 정말 새로웠다. 선생님께서 주신 잔돈으로 (감사합니다! (두 번째) 망원경을 켜 저 멀리에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었다. 망원경이 대체 얼마나 좋은 건지…. 내 눈으로만 보면 개미가 사는 집 같았는데 망원경으로 살펴보니

우리나라 국기가 보였고, 심지어 북한 특유의 글씨체로 적혀있는 표지판까지 보였다. 영화나, 드라마, 뉴스에서만 보던 북한의 흔적을 지금 내가 보고 있다니 정말 신기했다. 나는 여기서 의문이 들기도 했다. 분명 같은 나라고, 70년 전에는 하나였던 나라였는데 분단이 되어서 모든 게 다 신기할 따름이라니! 망원경에 몇 원을 더 넣어서라도 보고 싶은 마음이 컸지만, 시간 관계상 망원경을 온종일 볼 수는 없었다. 너무 아쉬웠지만, 다음에는 가족들과 함께 통일 이후에 다시 방문한다면 소원이 없을 것이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니까! 모노레일에서 내린 후 화장실을 다녀왔더니 선생님께서 군인분들과 함께 사진을 찍으라고 하셨다. 군인분들과 함께 있으니 내가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된 것만 같았다. 그다음은 평화 전망대와 가까이에 있는 월정리 역의 설명을 길잡이분께 들었다. 원래 우리나라를 하나로 이어주던 긴 기차였는데 기차가 폭격을 맞아서 중간에 끊긴 것이라고 하셨다. 버스를 타면서 처참한 현장을 보니 안타까운 마음만 들었다. 그때 폭격을 맞지 않았다면 지금쯤 기차 운행이 수월하게 될 수 있었을까? 아니면 분단 때문에 기차를 묵혀두었을까…? 그다음으로는 평화 통일 강의를 듣기 위해 국경선 평화 학교를 방문했다. 학교에는 정지석 박사님께서 기다리고 계셨다. 정지석 박사님께서 정말 중요하고 꼭 들어 봐야 할 강의를 해주셨다. 남한과 북한이라는 명칭을 달면서 이름을 다르게 부르는 이유는 분단이 되어서 서로 다르게 부르는 것이다. 박사님께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군사분계선을 넘어가는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그게 그렇게 감동일 수가 없었다. 나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부모님 고향이 함경도였다고 한다. 그리고 북한 땅도 자유롭게 가고 싶다는 꿈을 가진 사람들이 평화 통일을 꿈꾸는 사람들이다. 국경선 평화 학교는 13년 3월 1일에 개교했다. 국경선 평화 학교는 국경선 평화 운동을 시작했고, 청소년 평화 통일과 시민 평화 운동했다고 한다. 여기서 분단 한국과 통일 독일의 차이에는

분단 한국	통일 독일
학교 교육 평화 통일 교육 부재	평화 교육
정치 민족 문제 당파적 접근	민족 문제 초당적 접근
경제교류 정치이념 군사적 접근	인도주의적 자유 교류 원칙

이렇게 있다. 통일에 대해 설문조사를 해보았는데 10명 중의 7명은 통일되는 게 어려울 것 같다고 하였고, 10명 중의 8명은 통일보다 경제가 더 중요하고 잘 사는 게 제일 좋다고 하였으며 나머지 2명은 우리나라가 싸우는 것은 싫다 해 경제적으로는 어렵더라도 통일되는 게 좋다고 하였다. 가장 좋은 방법은 남북이 경제적으로 서로 협력하는 것이다. 남한은 자원이 부족하고 북한은 경제가 없다. 기술은 부족한데 자원은 많은 것이고 희귀 광물도 많은 것이다. 그러므로 남쪽에 있는 사업가들은 마음이 매우 안타까운 것이다. 이처럼 남한과 북한이 잘 살 수 있는 길은 남북이 협력하고 싸

우지 않는 것이다. 그다음으로는 소이 산 평화 순례를 다녀왔다. 우리는 6.25 전쟁에 참전하신 모든 군인분을 기리기 위해 아무 생각으로 오르지 않고 참전하셨던 분들을 생각하며 올라야 했다. 기려야 했다. 소이 산이 꽤 높아서 오르는 데 정말 숨이 찼다. 찼지만 끝까지 올라서 순례하고 싶단 마음 하나를 단단히 붙잡고 다리가 아프고 숨이 차도 끝까지 올랐다. 끈기를 가지고 끝까지 올라가 보니 노랗고 예쁘게 핀 꽃들이 한 곳에 모여있었다. 조금 전까지 힘들었던 것이 싹 가라앉은 것 같았다. 이곳에서 더 높이 올라가 보니 평화 전망대에서 봤던 경치가 여기에 다 모여있었다. 시원한 바람도 불고 정말 좋았다.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경치를 잊을 수 없었기에 카메라의 파노라마 기능으로 사진을 마구잡이로 찍어댔다.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사진들과 내가 직접 경험하고 찍은 사진들은 전혀 다른 존재일 것이다. 아쉽지만 소이 산 평화 순례는 우리의 마지막 코스였다. 정읍에 오기까지 총 4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여기서 늦어진다면 도착하는 시간이 정말 애매할 것이다. 아쉬웠지만 다음에 오기로 약속하고, 철원을 지키고 계시는 군인분들에게 작별인사를 했다. 다음에 다시 올 것을 기약하며! DMZ의 여정을 마치고 나는 많은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다. 통일을 위해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며 내가 아닌 그 이후에 태어날 어린 친구들을 위해 통일된 나라를 보여줘야 했다. 나는 통일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초등학생 때 통일 포스터 제작을 극도로 좋아하지 않았던 나를 반성하는 시간도 가져야 할 것 같다. 통일이 되면 어떤 영향을 받을지도 생각해봐야 했다. 오늘을 위해 수고해주신 전영숙 선생님, 정지석 박사님의 태도를 본받기로 하였다. 이분들은 통일만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노력하실 것이다. 통일을 위해서라면 뭐든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시려는 모습이 내 마음에도 크게 와닿았다. 다음에 다시 올 기회가 있다면 이분들에게 또 강의를 맡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저 너머에 있는, 가깝지만 갈 수 없고 닿을 수 없는 북한 땅을 바라보며 우리의 미래, 계획과 희망을 생각해보았다. 만일 미래에 빠른 통일이 온다면 우리나라는 한층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산가족 상봉도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남과 북으로 갈라졌던 가족이 상봉할 수 있게 된다면 불평, 불만 없고 말 그대로 평화로운 통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나도 통일을 원한다.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휴전이라는 단어를 곱씹으며 불안에 떨고 있을 것이고, 6.25 참전 용사분들도 분명 애처로울 것이다. 전 국민은 통일을 간절히 기도한다.